

## 병든 자녀 어떻게 도울것인가?

- 하신주 원장 / 2003. 7. 29 -

(창의적 접근 지역 유치원 원장,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 교회교육국 국장)

지난주에 이어 병든 자녀 어떻게 도울것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요21:10

너에게 소중한 것이라면 나에게도 소중하다. 부모라면 나의 자녀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관심을 어떻게 기울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는 하찮고 가치 없는 것일 수도 있었지만 베드로에게는 절실한 것이었고 소중한 것이었기에 예수님도 베드로의 입장에서 관심을 기울여 주신 것입니다.

너에게 소중한 생선이라면 나에게도 소중하다 지금 네가 잡은 생선을 가져와보라 어떤 생선 이냐? 크기는? 맛은 어떨까? 잘 팔리겠지? 수고했다. 힘들었지? 내가 이 생선 구워줄까? 배고팠지? 바로 이런 관심은 우리 자녀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우리 부모에게 나라는 존재는 소중하고 귀하구나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내 맘에 들지 않을지라도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소중하다면 이 아빠도 소중하단다. 그것은 네가 나에게 소중한 아이니까...”라고 말입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요21:12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기 전, 즉 뭔가를 요구하시기 전 먹을 것을 주시고 힘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굶주려 있었기에 그 상태로 아무리 원대한 비전을 나누었다 할지라도 배가 고파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무언가 요구를 하기 전 그들의 굶주려 있고 갈증난 육체와 마음을 사랑과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충분히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조금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채우기 전 홀로서기부터 요구하는 실수를 자주 범하게 됩니다.

“내양을 먹이라”

-요21:17

예수님을 부인한 배신한 베드로를 다시 믿어주고, 그에 비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문제 있는 아이일수록 부모가 믿어주고 꿈을 심어주고 너는 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는 것은 양약이고 보약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철저히 베드로의 입장에서 베드로에게 집중하시고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한번도 야단치거나 비난하지 않으시고, 교훈 한번 하시지 않고 그 위대한 대 사도로 만드셨습니다.

위대한 사랑이 만든 위대한 승리였던 것입니다.

자녀를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꿈을 심어 주십시오.

☉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 「온누리칼럼」 제공